

# ‘올해 강진 반값여행 언제 시작하나요?’ 문의 쇄도

### 겨울 여행객 발길 잡을 2026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19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통해 사전 신청·접수 시작

“올해도 반값 여행하죠? 언제 시작해요?”  
 “작년에 신청 못 했는데, 이번에 꼭 가고 싶어요.”  
 지난해 연말부터 강진군청 문화관광과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여행 판을 뜨겁게 달구며 대통령의 공개 언급까지 이끌어낸 ‘강진 반값여행’을 기다리는 목소리다.  
 이 같은 관심 속에 ‘강진군 반값여행’이 올해도 다시 출발한다.  
 강진군은 오는 1월 19일부터 강진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gangiintour.com)를 통해 반값여행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을 여행하며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관광정책이다. 개인 신청자는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 신청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여행 하루 전

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1일 이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심사 결과와 회원번호가 발송되며, 승인된 신청자는 안내된 기간 내 강진 여행을 즐기면 된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7일 이내 강진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사진과 강진에서 사용한 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 정산이 승인되면 3일 이내, 여행 경비의 절반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강진 반값여행’은 시행 첫해부터 뚜렷한 성과를 냈다. 총 1만 5,291팀이 참여해 47억 원을 강진에서 소비했으며, 반값여행 지원금으로 22억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19억 원이 다시 지역에서 재소비되며, 최종적으로 66억 원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두 번째로 시행된 2025년에는 반응이 더욱 폭발적이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2.6배 이상 증가한 3만 9,066팀이 강진을



찾았다. 이들은 강진에서 106억 원을 소비했고, 반값여행 지원금 49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된 지원금 중 42억 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며, 최종적으로 148억 원이 강진에서 사용됐다. 이는 2024년보다 2.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강진 반값여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처럼 관광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며 극찬을 받았고, 올해 ‘지역사랑유가제’라는 이름의 국가정책으

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해당 정책은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며 관광 분야에서도 혁신성과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강진 반값여행 시행 이후 강진 방문인구는 2024년 577만 명, 2025년 602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방문인구 7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강진역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반값여행 정책과의 시너지를 통해 관광객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 “청년이 정책을 만든다” 보성군, 청년협의회 본격 출범 보성군 청년협의회 위원, 첫 정기총회 개최

보성군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군정에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제4기 보성군 청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향후 2년간 청년 주도의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군 귀농 귀촌센터에서 ‘2026년 제4기 보성군 청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4기 보성군 청년협의회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4기 보성군 청년협의회’는 관내 12개 읍면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과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삶과 직결된 정책 논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제4기 청년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해 임태욱 대표와 주현욱 부대표를 선출하였으며, 향후 협의체 활동 방향과 분과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획·운영, ▲홍보·디자인, ▲교류·협력, ▲축제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지역 청년의 의견에 적극 수렴해 청년 주도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4기 보성군 청년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임태욱 대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주도의 정책과 지역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제4기 청년협의회는 청년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청년협의회’는 「보성군 청년발전조례」 제14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년 정책 참여 기구로, 현재 제4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체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며 청년과 군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보성/김운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나주물’을 통해 전품목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5년 연 매출 16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나주물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나주물 설 명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나주배, 쌀, 한라봉, 홍어, 한우 등 나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행사 기간에 나주

나주물, 설 명절 맞아 전품목 20% 할인 기획전 진행 ‘천년이음 나주배’ 설 명절 선물 수요 증가  
 물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전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할인 금액은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적용된다.  
 특히 ‘천년이음 나주배’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나주시장 품질보증을 받은 고품질 배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아 배 본연의 단맛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이다.  
 나주물은 연중 택배비 무료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설 명절 기획전에서도 추가 배송비 부담 없이 고품질 농특산물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우수한 나주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인 폭과 혜택을 강화했다”며 “2026년 나주 방문의 해



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나주물 이용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은 새해를 맞아 제철 과일 소비를 늘리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신선딸기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은 오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곡성농협, 곡성멜론쥬, 모와농장이 참여해 곡성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를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판매 상품은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판매 품목은 곡성물 메인 화면과 기획전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제는 2,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다만 모든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곡성물 관계자는 “제철을 맞은 곡성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기 위해 기획전을 준비했다. 곡성물을 통해 지역 농가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꾸준히 소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물은 전 상품 무료배송 해

새해를 여는 달콤한 선택, 곡성물 신선딸기 기획전 진행 달콤한 제철 곡성 딸기 최대 20% 할인 판매  
 구매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곡성물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리뷰 유형에 따라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텍스트 리뷰는 500원, 포토 리뷰는 1,000원 상당의 쿠폰이 제공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또 곡성물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신규 이용자



택을 연중 상시 제공, 소비자들이 배송비 부담 없이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 순천시, 8종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농가들에게 ‘큰 호응’

액상·고형 미생물 공급으로 작물·축산 전반 활용도 제고  
 순천시는 올해 미생물센터를 통해 유용미생물 8종, 900톤을 약 5,500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미생물센터에서는 액상 6종(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BL균, BT제)과 고형 2종(멜릿형 토양개량제, 생균제)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액상미생물은 토양 환경 개선·작물 성장 촉진·가축 분뇨 처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며, 고형미생물 중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인 생균제는 가축의 소화율 향상·면역력 강화·육질 개선과 축사 내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축산농가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는 이용 농가의 편의를 위해 주 3일 권역별 배달제 시행으로 농가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적기 공급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용미생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양 기술을 개선하고 농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생물 활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농가는 순천시 미생물센터(061-749-8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